

30.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제조업	작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이○○ 1981년 초순경부터 OO제약(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6.25 폐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제 치료 중이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이○○씨는 1981년부터 2007년까지 본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포장작업을 하였다. 근무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8시 30분 ~ 6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6시까지였고 야근 등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다. 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모두 고체형의 살충, 살서제로 해충이나 쥐가 섭취하였을때 독작용을 하는 독먹이 제제이다. 스프레이나 혼중제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제품은 제조하고 있지 않았다. 공통적인 업공정은 원료 투입 -> 배합 -> 충전 -> 포장이다. 원료 투입은 합성실에서 주원료 및 제품 성상 유지 및 해충 유인을 위한 첨가물을 수동으로 집어 넣는 공정이다. 배합공정에서는 전동식의 배합기를 이용, 열이나 압력의 추가 없이 원료들을 그대로 저어주어 골고루 섞이게 한다. 배합이 완료된 고형 또는 반고형의 원료들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자동충진기에 투입되고 자동충진기를 통과하여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된다. 엔독스 제품은 충전기에서 플라스틱용기에 일정량 담겨지면 포장작업자가 뚜껑을 막고, 테이프 밀착 후 박스 포장을 하고 나머지 제품은 충전기를 통과하면서 제품이 완성되어 포장작업자는 상자 포장만 수작업으로 한다

3. 의학적 소견: 담배, 술을 전혀 하지 않으며 가족력상 특이 사항이 없었다. 마른기침이 심해 감기증상인줄 알고 2007년 5월경 OO가정의학과(진월동 소재)와 O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다가 호전되지 않아 2007년 6월 11일 정밀검사를 위해 (주)OO제약에서 근무를 중단하고 서광병원(금호동소재), OO대학병원, 화순OO병원에서 검사 결과 양쪽 폐와, 종격동, 경부림프절에 전이된 stage IV(T4N3M1) non-small cell lung cancer로 2007년 6월 30일 진단받았다. 1차 항암치료 후 2차 항암치료 위해 진료하였으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활력 저하 등의 항암치료 부작용 있었다고 하였다.

4. 결론: 근로자 이○○은

- ① 장기간 살충제 및 살사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으나
- ② 이들 물질 중 폐암의 발암성이 확인된 것은 없으며
- ③ 포장작업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매우 낮아

근로자 이○○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